

# 樟南의 사상적 배경과 의학관

成昊俊·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 A Background on the Thought of Zhang-nan(樟南)'s medicine

Sung Ho-Jun, Yoon Chang-Yeul.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Zhang-nan(樟南) did not regard the human's life phenomena as a simple physical change in his medical theory. He thought medicine in the light of the establishment of moralism and partly used it for the practical Confucianism as well. In view of the Chijunghwa(致中和), Zhang-nan(樟南) succeeded the tradition of the Simseongnon(心性論, Emotional naturalism) in Neo-Confucianism(性理學) in the point of essential and principal Junghwa(中和). Therefore, Zhang-nan(樟南)'s medical theory is very suggestive not only in Medicine but also in Liberal art which pursue the moral Seongmyeong(性命).

key words : Zhang-nan(樟南), Chijunghwa(致中和), Simseongnon(心性論).

### I. 緒論

본 연구는 청대(淸代)의 의가인 장남(章楠)의 의역학(醫易學)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생명사상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남은 금원대(金元代) 유의(儒醫)의 전통과 의역학을 충실히 계승한 의학자이다. 그러나 장남에 대한 중국이나 한국의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의학과 역학에

대한 학제적 논의가 철학전공자나 의학전공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장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물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다만 각 저술에서 소략하게 언급된 정도에 불과하다.

금원대(金元代) 이후 명청(淸淸)을 거치면서 보다 정제(整齊)되고 완숙된 의미의 유의(儒醫)가 출현하는데, 대표적인 이가 명대의 장개빈·서대춘(徐大椿)과 청대(淸代)의 당종해(唐宗海)·장남(章楠) 등이다. 장남(章楠)의 의론(醫論)은 역학(易學)을 단순히 심화(心火)·신수(腎水)나 수화기제(水火既濟) 등 패상(卦象)의 분석을 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ac.kr Tel : 042) 280-2601

않았다. 장남의 의학은 도덕(道德) 성명(性命)의 바름을 추구하고, 천도(天道)와 성명(性命)이 성(誠)으로 일관되는 의리학(義理學)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장남'은 주돈이(周敦頤)와 주자(朱子) 그리고 『대학』·『중용』의 인용을 통하여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은 -생물 연대가 확실치 않으나 - 대략 청대(清代) 건륭(乾隆) 시절에 출생하여 도광(道光) 15년(1835년) 이후까지 생존 하였던 의학자로 자(字)는 허곡(虛谷)이다. 그는 주돈이(周敦頤)나 주자(朱子) 등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본지로 삼고, 중화(中和)의 논의를 통하여 의학과 역학을 계통적으로 이해한 특징이 있다. 생리적 생명 구조와 도덕적 성정(性情)의 구조가 둘이 아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음양의 중화를 통하여 의학적·철학적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장남은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성의정심(誠意正心)의 논의를 통하여 심성(心性) 구조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심화(心火)·신수(腎水)로 대변되는 생리적 구조와는 어떻게 화통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생명'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장남의 의학은 역학을 통한 의·도·유(醫·道·儒)의 회통적 구조를 지니는데, 이는 단위 학문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 동양학의 학문적 지향을 반본(返本)시켜 동양적 세계관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심성적 구조가 생리적 변화로 전이(轉移)되고 생리적 변화가 심리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의미를 서술함으로써 심리·생리의 일원적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천인상응이라는 동양적 세계관의 의미를 인간 생명의 전일(全一)적인 이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장남은 금원대(金元代) 이후의 유의 중에서도 독특하게 유학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다수 인용하여 자신의 의론(醫論)을 전개한 특징이 있다. 이는 장남의 저서 『의문봉갈(醫門棒喝)』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의문봉갈』의 전진원(田晉元) 서(序)에 의하면 장남은 유(儒)·불(佛)·의(醫) 세 가지의 이치에 관통하였는데, 의(醫)에 더욱 정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학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역(易)과 천문(天文)·역률(歷律)에도 밝아서 백가(百家)를 관통하였다고 하였는데, 장남의 학문 중심은 유학에 있다. 『의문봉갈』은 장남의 의학 및 세계관을 탐구하는데 필수적인 책일 뿐 아니라 청대 의학의 생명사상을 분석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이다. 『의문봉갈』은 1825년에 간행되었는데, 총 3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문봉갈 초집(初集)』·『의문봉갈 이집(二集)』·『의문봉갈 삼집(三集)』이 그것이다. '도서출판 정담'에서 영인한 왕맹영(王孟英)의 『증비평점(增批評點) 의문봉갈』상·하권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저본(底本)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남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사상적 배경과 의학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는 『의문봉갈』을 통하여 장남 의학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유학이고 유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는 유의의 대표적 주양인 의유동도(醫儒同道)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장남의학의 의학관을 '의학소도(醫學小道)'에 대한 입장을 통하여 살펴보고 동체이용(同體異用)의 사상적·의학적 의미를 치중화(致中和)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儒醫전통의 계승과 醫儒同道

### (1) 儒醫의 전통의 계승

장남의 의학은 우선 금원대(金元代) 이후 형성된 유의(儒醫)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유의의 출현은 의도동원(醫道同源)이라 하여 의학의 도가·도교적 연관성만을 중시하던 이전

의학적 세계관과는 다른 체계를 구성하게 하였다. 즉 유도(儒道)의 실천을 통하여 의학 윤리를 정립하고 하였으며 의사와 환자 그리고 사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술(仁術)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였다.<sup>1)</sup> 본디 도가나 도교사상은 의술(醫術)의 사회적 책임이나 의사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기 보다는 기화(氣化)의 측면에서 인체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데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즉 일기(一氣)를 통하여 천인(天人)이 상응(相應)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인체의 변화를 우주의 변화와 상응하는 구조로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면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儒醫)들은 유도를 통한 의학의 이상 실현을 『중용(中庸)』의 '중화(中和)'나 '인(仁)'을 빌어 그 근거로 활용하고 형이상학적 배경으로 삼았다. 유의들은 더욱이 의유동도(醫儒同道)라고 하여 의학과 유학이 하나의 도(道)를 지향한다고까지 하였다. 유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원대(元代) 성리학의 중심인물인 오징(吳澄)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유도(儒道)는 인(仁)일 뿐이다. 애(愛)라는 것은 인(仁)의 용(用)이니 애(愛)의 앞선 것은 애친(愛親)·애신(愛身)이 가장 크도다! 친(親)은 자신(身)의 뿌리니 애친(愛親)을 알지 못하면 그 뿌리를 잊는 것이요, 자신(身)이라는 것은 친(親)의 가지이니 애신(愛身)을 알지 못하면 그 가지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애친(愛親)·애신(愛身)하여 장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의(醫)가 아니면 누가 능히 하리요? 그러므로 유자(儒者)는 의(醫)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sup>2)</sup>

1) 유의(儒醫)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의학적 특징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바람. 成昊俊 「儒醫 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제16권 1호, 2003) 성호준 「論語와 儒醫 의학의 상관성」 『동양철학연구』 제34집, 2003)

이는 유학(儒學)의 최고의 덕목인 효(孝)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구절이다. 같은 시대의 호병문(胡炳文)은 정이천의 후손인 정민재(程敏齋)에게 주는 글에서 "유자(儒者)가 의학을 하지 않으면 유학에 통할 수 없고 의자(醫者)가 유학(儒學)을 하지 않으면 양의(良醫)가 아니다."라고 까지 말한다. 이는 단지 의학을 친친인민(親親仁民)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과 유학을 하나의 범주 안에 두고 동일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체용(體用)의 관계로 보는 듯이 느껴진다.

명확한 '유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는 명대(明代) 말의 장개빈(張介賓)이다. 그는 의학의 가치를 치중화(致中和)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그는 도학(道學)은 성명(性命)의 범칙이며 의학은 성명(性命)의 찬육(贊育)이라 하여 의학(醫學)은 성명(性命)의 차원에서 소도(小道)가 아니라 하였다.<sup>4)</sup> 『중용』 1장의 "치중화하면 천지가 (제자리에) 자리하며 만물이 길러지니라"<sup>5)</sup>의 뜻과 22장의 "물(物)의 성(性)을 다하면 곧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다."<sup>6)</sup>는 구절에 의학의 본질을 찾고자 한 면이 있다.

장남(章楠)도 장개빈의 '치중화(致中和)' 입장을 수용하여 '유학적 의학'을 『의문봉갈(醫門棒喝)』에서 명확히 나타낸다. 전진원(田晉元)의 서(序)에 의하면 장남은 유(儒)·불(佛)·의(醫) 등 세 가지의 이치에 관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전진원은 장남이 의(醫)에 더욱 정통하였으며 단지 의학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2) 『吳文正集』 권15 "儒之道 仁而已 愛者 仁之用 而愛之所先 愛親愛身最大 親者身之本也 不知愛親 則忘其本身者親之伎也 不知愛身 則傷其枝 愛親愛身而使之壽且康 非醫其孰能 故儒者不可以不知醫也"  
3) 『雲峰集』 권3 「贈醫者程敏齋序」 "儒不醫 非通儒 醫不儒 非良醫"  
4) 『景岳全書』 권18 「傳忠錄」 下 醫學非小道記 참조  
5) 『中庸章句』 1장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6) 『中庸章句』 22장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역(易)과 천문(天文)·역율(歷律)에도 밝아서 백가(百家)를 관통하였다고 하였는데, 학문의 중심은 유학에 있다. 장남 자신도 대저 치중화(致中和)하면 만물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유자(儒者)의 도(道)는 곧 의자(醫者)의 도(道)가 된다. 그것을 조화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은 반드시 음양 조화의 이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의(醫)와 역(易)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역(易)을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역(易)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경솔하게 음양의 이치를 논하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중화위육(中和位育)의 과정에서 심신(心身)의 조섭(調攝)을 아울러 구현하고, 음양동정의 동적(動的)인 평형(平衡)을 추구함이 의학이다. 시공간에서 음양소식이라는 형기의 변화가 적절하게 운용되는가는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음평양비(陰平陽秘)’의 실현에 있는데, 중화를 구현하고 ‘천지위(天地位)·만물육(萬物育)’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단계로 전개된다.

장남은 또한 천지의 광대함과 사물의 변화는 한계가 없으나 그것을 궁구하면 하나의 이치일 뿐이다. 그 이치를 보면 접촉하는 곳 모두 통하나 그 이치에 어두우면 움진임이 많으나 막히게 된다. 이치가 신심(身心)의 성명(性命)에 절실한 것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하는 것 이외에 의학에서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의학이 성명을 보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물·치지·성의·정심이 아니고서는 의학의 이치에 통달할 수 없으니, 곧 의학은 진실로 유자(儒者)의 일이다.<sup>7)</sup> 라고 하였

다. 이 글에서 보면 장남은 『대학(大學)』의 8조목 중 격물·치지·성의·정심의 4조목을 의학과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격물·치지라는 사물의 인식방법과 성의·정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가 아울러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격·치는 각 일물(一物)에 나아가 앎을 이루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근거로 활용하여 의학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격·치·성·정은 『중용(中庸)』의 치중화(致中和)의 논리와 더불어 장남의학이 유의(儒醫)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 (2) 醫儒同道의 의미

장남은 『논경악서(論景岳書)』에서 생명의 중화(中和)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치중화(致中和)하면 천지가 자리하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하였는데,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 말하는 것은 중화의 도를 얻은 것이고, 중화라는 것은 음양이 둘 다 평형을 이루어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易)에서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한 번 음하고 두 번 양하거나 한 번 양하고 두 번 음하면 고두 한쪽에 치우쳐 중화를 잃는 것이니 도가 아니다.<sup>9)</sup>

이 구절에서 보면 인간생명 중화의 핵심은 일음일양(一陰一陽)이라는 음양동정의 ‘음양양평(陰陽兩平)’과 ‘불편불의(不偏不倚)’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은 중화의 도를 얻음에 있다고 하였다. 음양동정을 의학과

7) 『醫門棒喝』 「論景岳書」 “夫致中和育萬物 爲儒者之道 卽醫者之道也 而和之育之 必本乎陰陽造化之理 此醫易之所同也 故不知儒理 不可以談易 不解易義 豈可輕論陰陽之理乎”

8) 『醫門棒喝』 自序 “天地之大 事物之變 莫可涯矣 究之一理而已 見其理 觸處皆通 昧其理 則動多窒礙 而理之切於身心性命者 自格致誠正外 莫重於醫 以其保衛

性命者也 然非格致誠正之功 不能通醫之理 則醫固儒者之事也”

9) 『醫門棒喝』 「論景岳書」 “夫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天地之大德曰生者 得中和之道也 中和者 陰陽兩平 不偏不倚 故易曰一陰一陽之謂道 若是一陰二陽 一陽二陰 皆偏倚一邊 失中和 而非道矣”

역학이 상통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중화의 실현이라는 것이 의학과 역학의 공동 목표가 되는 셈이다. 또한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고 하였는데, 생(生)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생명의 화생(化生)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단순히 기의 변화로만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장남은 믿었다. 그것은 '치중화(致中和)'라고 설명한 부분에서 나타나 있다. 장남은 장개빈의 경우와 유사한 논리로 유학과 의학의 매개점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용장구』 1장의 주자(朱子)의 주는 "자리한다(位)의 뜻은 그 자리를 편안히 함이고, 기른다(育)함은 그 삶을 이루는 것이다."<sup>10)</sup> 라고 하였다. 이는 자기 마음의 중화(中和)가 이루어지면 천하의 중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천지와 자신이 하나의 기(氣)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 도덕적 의미가 일관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장개빈은 도학은 성명의 법칙이라고 하였고, 의학은 찬육이라고 하였는데, 『주역』에 있는 "건도(乾道)가 변화하여 각기 성명을 바로 한다"<sup>11)</sup>는 것은 천이 부여한 것은 삶이 되고 그것을 인간을 비롯한 물(物)이 받은 것은 성(性)이 된다. 그러나 성명의 근원은 성(誠)에 있다. 아울러 천도(天道)의 변화인 원형리정(元亨利貞)은 성(誠)이 유행(流行)하는 과정이고, 각정성명(各正性命)은 인도(人道)에 중심을 둔 것으로 천도(天道)와 성명(性命)은 성(誠)으로 일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명의 바름을 구현하는 것이 유학의 중화라면 바르게 된 성명을 바탕으로 인·물의 화육(化育)을 돕는 것이 음양의 중화라는 의학의 중화이다. 그러나 이 둘은 체용일원의 관계로 상호 잠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다. 물론 유학은 체인 '각

정성명'의 부분에 치중한 면이 있고, 의학은 기(氣)를 중시하는 성명의 화육을 중시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장남을 비롯한 금원대 이후의 유의들은 '각정성명'의 부분도 의학적으로 구현하려는 심리·생리의 통합적인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서 진정한 중화위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남도 심성(心性)의 격치(格致)·성정(誠正)과 약석(藥石)의 역할을 아울러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중화의 의미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장남은 중화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는 유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찍이 생각해 보면 천하에 두 가지 도가 있지 않으니 격·치·성·정으로부터 천지에 동참하여 화육(化育)을 돕는 데에 이르는 것이 어찌 유자(儒者)의 대도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사람이 천지의 기화(氣化)를 품부 받아 생한다. ... 황제와 기백이 처음 인생이 품부된 근원과 음양오행의 이치와 팔풍(八風)·육기(六氣)의 변화와 질병치료의 방법을 밝혔고, 후세에 여러 현인이 서로 이어 천발(闡發)하여 거의 빠뜨려 남긴 뜻이 없게 되어 성명(性命)을 보위하고 질병을 막는 방법이 두루 갖추어지게 되었다. 만약 그 궁극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실로 유리(儒理)와 더불어 일치한다. 그러므로 유의(儒醫)라 일컫는 것이다.<sup>13)</sup>

이 구절에서 보면 유학의 대도(大道)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위하고 질병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의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

12) 成昊俊, 「儒醫 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6권 1호, 2003)

13) 『醫門棒喝』 「醫稱小道」 “嘗思天下無二道 自格致誠正 而至參天地贊化育 豈不爲儒者之大道乎 但人稟天地氣化而生 … 軒岐首明人生稟賦之源 陰陽五行之理 八風之變 疾疢治療之方 後世諸賢相繼闡發 殆無遺蘊 所以衛性命而御疾病者 周且備矣 若溯其極 實與儒理一致 故稱儒醫”

10) 『中庸章句』 1장 朱子 주 “位者 安其所也 育者 遂其生也”

11) 『周易』 「彖傳」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 乃利貞” 참조

러 이는 유학의 큰 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의 목적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장남의 이러한 말은 앞서 유의들이 주창한 의유동도(醫儒同道)의 이념에 기반 한 것으로 의학의 이상은 유학의 이상과 합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장남의 의학과 유학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인간의 생명을 형기(形氣)와 문화(文化)의 양면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이들은 들이면서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신체를 운용하는 주재자(主宰者)이다. 의학이 기화(氣化)를 중심으로 하여 생명의 형기적 변화를 쫓는 학문이라 한다면 유학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생명의 문화적 의미 내지는 도덕적 생명론을 제창한 학문이다. 유학이 추구하였던 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의 도덕주체의 확립이며 유의들은 그러한 점을 의학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인간 생명에 대한 의학적 탐구는 과학기술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인간 생명의 도덕적 의미를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신체를 해석하는 의학의 문화적-도덕적 분석도 과학적 영역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함을 장남을 비롯한 유의들은 주장한 것이다.<sup>14)</sup>

### Ⅲ. ‘의학-소도(醫學-小道)’와 치중화(致中和)

#### (1) ‘醫學小道論’에 대한 입장

장남은 논의한 것과 같이 자신의 의학적 기반을 유의의 전통에서 찾고 유도(儒道)의 실현을 의학의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장남의 의학은 중화(中和)를 유학과 의학을 이어주는 중심개념으로 삼아 의유동도(醫儒同道)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4) 성호준 「論語와 儒醫 의학의 상관성」, 《동양철학연구》 제34집, 2003 참조.

따라서 의학은 유학에 못지않게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장남이 자신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주자학적 의학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장남은 주자가 말한 ‘의학은 소도(小道)’라는 표현에 대해 변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의학은 소도(小道)’라는 표현은 『논어집주』와 『주자어류』의 주자의 말에 나온다. “소도는 이단은 아니나 소도 또한 도리(道理)이다. 다만 작을 뿐이다. 농사·의술·점술·장인 등의 부류들이다.”<sup>15)</sup>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듯하다. 전통적으로 유가(儒家)는 도덕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천도(天道)와 성명(性命)이 성(誠)으로 일관하게 하고, 인간의 도덕적 주체를 확립하여 사회의 도덕적 생명 기운을 확립하는 것이 유학의 이상이다. 그러므로 송대 이후 성리학을 중심으로 성립된 신유학에서는 인간존재의 도덕론적 의미 분석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유의(儒醫)의 경우에서처럼 금원대(金元代)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족(漢族)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출사(出仕)의 길이 원천봉쇄되어 있었다. 한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과거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매우 한정된 인원만 등용되는 등의 외부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전란(戰亂)으로 인한 친족의 질병에 대해 치유하는 차원으로 의사가 된 경우도 있다.<sup>16)</sup>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가 된 유학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유의(儒醫)의 출현을 추동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자의 ‘의학=소도(小道)’라는 표현은 유의들의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명확히 반론을 제기한

15) 『朱子語類』 권49 “小道不是異端 小道亦是道理 只是小 如農圃醫卜百工之類”

16) 薛公忱篇, 『論中儒道佛』, 中醫古籍出版社, p. 7

이가 명대(明代)의 장개빈이고 장개빈의 이론에 대해 심할 정도로 반대 의견을 지니고 있던 장남의 경우도 장개빈과 주자의 '의학=소도'논쟁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장개빈의 경우를 보자. 경약은 『경약전서(景岳全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성명(性命)의 도(道)는 태극에 근본하고 만수(萬殊)에 흩어진다. 성명이 있는 연후에 삼교가 세워지고 성명이 있는 연후에 오륜(五倫)이 생한다. 그러므로 조화하는 것은 성명의 화로이며 도학(道學)이라는 것은 성명의 기준이며 의약이라는 것은 성명의 찬육(贊育)이다. 그런데 그 뜻은 깊고 그 가르침은 넓으니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sup>17)</sup>

이 구절에서 보면 경약은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을 빌어 의학이 성명의 찬육(贊育)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소도(小道)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약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즉 중화위육(中和位育)의 유학 이상의 실현은 단지 유자(儒者)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경약은 주자(朱子)의 '의학=소도'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화위육의 의학적·유학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수용한 장남은 경약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도 또한 경약의 글 「의비소도기(醫非小道記)」에 맞서 「의칭소도(醫稱小道)」라는 글을 『의문봉갈』에 실고 있다. 그는 글의 내용에서 의학과 유학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의학이 비록 소도이기는 하지만, 대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그의 글을 보면 유자(儒者)는 나라를 다스리고 의자(醫者)는 몸을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림은 큰 것이 되고 몸을 다스림은 작은 것이 된다. 그러나 실상 상호 필요로 하는 도이다. 만약 격치성정(格致誠正)의 학문이 없다면 성리(性理)를 밝힐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질병을 치료하는 약석(藥石)의 방법이 없다면 수명은 견고해 오랏 수가 없고 몸을 능히 보전할 수가 없다. 나라를 다스림이 비록 크나 몸을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이니 몸이 없다면 무엇으로 다스리겠는가?<sup>18)</sup>

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보면 장남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신(治身)과 치국(治國)을 유비하여 의학과 유학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즉 『황제내경』이나 『도덕경하상공장구(道德經河上公章句)』 『포박자(抱朴子)』 등에서 인체의 장부와 국가의 기관을 비교하여 설명을 한 구절 등이 있는데, 장남은 이러한 전통을 적극 수용하여 '유학-대도' '의학-소도'를 주장하고 있다. 일신(一身)의 보양(保養)이 한 국가의 다스림과 서로 상통한다고 하여 진기(眞氣)를 보전하는 양생을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황제내경』이나 『도덕경하상공장구』 『포박자』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인간의 요체를 진기(眞氣)라는 것으로 두고 이 진기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이다.<sup>19)</sup>

장남은 '국가-신체'를 각각 '유학-의학' '대도-소도'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서 의학은 비록 소도이기는 하지만 대도의 실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그는 이어 말하기를 "의학을 소도라 칭하는 것은 아득한 것이 아니다. 그

18) 『醫門棒喝』 「醫稱小道」 “儒者治國 醫者治身 治國爲大 治身爲小 而實有相須之道焉 若無格致誠正之學 則性理不明 而國不可治 無療疾藥石之方 則壽命不固 而身不能保 治國雖大 而保身猶先 無身則誰爲治”

19)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2001,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7

17) 『景岳全書』 권3 「醫學非小道記」 “夫性命之道 本乎太極 散于萬殊 有性命然後三教立 有性命然後五倫生 故造化者 性命之爐冶也 道學者 性命之繩墨也 醫藥者 性命之贊育也 然而其義深 其旨博 故不有出人之智”

실상은 대도를 보위하는 것으로 빠트릴 수 없다. 그러므로 소도라 칭하지만 대도와 더불어 한 가지 근원이다.”<sup>20)</sup>라 하였다. 이는 앞서 유학과 의학을 대도와 소도로 분류하기는 하나 그 근원에서는 하나임을 밝히고 비록 의학이 소도이기는 하지만, 성명(性命)을 보위하는 일을 담당하니 그 중요성은 대도에 못지않다고 한 것이다. 이는 주자(朱子)가 의학을 소도라 칭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천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곡해하여 가볍고 소홀히 다룬 후세 사람들의 잘못으로 여긴다고 하였다.<sup>21)</sup> 장남에 있어서 소도(小道)는 결국 장개빈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자구(字句)의 해석 차이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경약 장개빈이 성명의 찬육(贊育)을 담당하는 의학이 소도(小道)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장남이 소도이기는 하지만 대도와 같은 근원이고 대도가 소도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한 것 모두는 유의(儒醫)라는 공통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이론(異論)’이라 생각한다.

## (2) 同體異用과 致中和

장남의 「논역리(論易理)」에서 보면 대도와 소도의 의미를 분석하고 의학과 역학 그리고 유학이 同體異用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성인(聖人, 孔子를 지칭)은 세상을 다스릴 대도를 행했고 병을 다스릴 소도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약의 성분에) 통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맞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道)의 용(用)은 대소가 있고, 그 체(體)는 동일한데, 그 연계 된 것의 중요한 가치는 오히려 대도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 성명이 있는 연후에 도덕(道德)과

공업(功業)이 있는 것이니, 성명을 보전하는 것은 의도(醫道)이다. 그 이치는 역경(易經)과 더불어 음양과 태극이라는 근원에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체(體)는 동일하나 용(用)이 다를 뿐이다.<sup>22)</sup>

이 구절에서 보면 대도와 소도의 차이는 동체이용(同體異用)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태극과 음양이라는 천지만물의 화생(化生)과 운용의 원리는 체(體)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세(治世)와 치신(治身)을 행하는 의학과 유학은 용(用)임을 알 수 있다.

장남의 의학과 유학에 대한 동체이용의 구조는 도교 등을 설명하는 원리로 활용된다. 즉 의학과 유학 그리고 도교를 이용(異用)에 두고 역학을 공유하는 체(體)에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장남은 “도가 문하의 책을 살펴 보면 노자로부터 위백양(魏伯陽)의 『참동계』와 장자양(張紫陽)의 『오진편(悟真篇)』만이 여전히 경전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서 유가(儒家)의 이치와 용(用)을 달리해도 귀착되는 곳은 동일했다.”<sup>23)</sup> 고 하였다. 이는 주자(朱子)도 음양소식(陰陽消息)에 관해서는 『참동계』를 칭찬한 바가 있는데, 『참동계』는 위진시대 이후 내단(內丹)의 지침서로 활용되었을 것이고, 『오진편』은 도교의 논의 중에서도 유학과 밀접한 심성 수련(修煉)의 측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유불도 삼교합일(三教合一)과 성명쌍수(性命雙修)를 주장하여 유학의 심성수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송대(宋代) 남종(南宗) 내단사상의 경전이다. 아울러 이러한 서적을 중심으로 유학과 도교 그

22) 『醫門棒喝』 「論易理」, “聖人爲治世之大道 不爲治病之小道 故言某未達不敢管 然道之用有大小 而其體則一也 其所系之重 猶先於大道 何고 蓋有性命而後有道 德功業 保性命者 醫道也 其理則與易經同出陰陽太極之源 故體同而異用也”

23) 『醫門棒喝』 「論易理」, “觀道門中書 自老氏以下 惟魏伯陽參同契 張紫陽悟真篇 猶不乖經旨 與儒理異用同歸”

20) 『醫門棒喝』 「醫稱小道」, “醫之稱小道者 非藐之也 以其實衛於大道 而不可關 故稱小道 而與大道一源也”

21) 『醫門棒喝』 「醫稱小道」, 참조.

리고 의학이 역학의 음양론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회통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남은 “천하의 도(道)와 리(理)는 하나일 뿐인데, 의리(醫理)가 곧 역리(易理)이며 유도(儒道)가 곧 의도(醫道)이다. … 저 도가 바로 리이고 리가 바로 도이니 명칭은 다르지만 체는 하나로 한다.”<sup>24)</sup>라 하였는데, 이는 의리와 역리 아울러 유학이 하나의 이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역(周易)의 ‘원취저물(遠取諸物)’과 ‘근취저신(近取諸身)’의 관점에서 보면 ‘근취저신’은 의학에서 취하고 ‘원취저물’은 역학에서 취하여 하나의 원리로 구성하고자 하는 논리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자연과 인간생명이 하나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천인합일이나 천인상응이라는 동양적 전통을 음양이라는 논거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였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인문주의와 자연주의적 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하나의 전일(全一)적인 체계로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역학(易學)이 음양(陰陽)을 매개로 도교(道敎)와 유학(儒學)을 서로 이어주는 접점이 되고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장남에 있어 의학과 유학 그리고 도교의 내단사상의 부분은 중화(中和)나 음양(陰陽)이라는 논거를 통하여 하나의 상통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음의 구절을 다시 보자

대저 치중화(致中和)하면 만물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유자(儒者)의 도(道)는 곧 의자(醫者)의 도(道)가 된다. 그것을 조화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은 반드시 음양 조화의 이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의(醫)와 역(易)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역(易)을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역(易)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경솔하게 음양의 이치를 논하겠는가?<sup>25)</sup>

중화를 지극히 한다는 치중화(致中和)의 원리는 결국 음양론의 이치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음양론은 『중용』에 있어서는 중화나 성정(性情)의 심성문제로 나타나고 『황제내경』 등 의서(醫書)에서는 ‘음평양비(陰平陽秘)’라는 신체의 생리적 균형을 설명하는 도구이며, 도교 내단사상 등에 있어서는 심화(心火)와 신수(腎水)의 수화기제(水火既濟)의 의미로 활용되는 등 인간 생명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사고의 틀이 되어 왔다. 즉 역학·도학에서는 음양의 원리적 측면이나 인간의 심성적 측면에 치중하였고, 의학이나 단학은 심화(心火)·신수(腎水)나 수화기제(水火既濟)라 하여 원리가 현상에 구현된 형질(形質)의 음양동정을 논한 면이 있다. 장남도 이를 일관하여 음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남은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이 논한 음양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나 중화(中和)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 의경(醫經)과 역경(易經)은 용이 비록 다르나 음양·태극의 근원에서 함께 나왔으니 ‘의가 곧 역이요 역이 곧 의이다.’고 이를 수 있다.”<sup>26)</sup>라고 한 것이다.

#### IV. 結 論

이상에서 필자는 장남의 의학관과 사상적 배경을 『의문봉갈』을 통하여 논의해 보았다. 장남은 금원대 유의(儒醫)의 전통을 계승한 학자로 판단된다. 그는 금원대(金元代) 이후 형성된 유의들의 의유동도(醫儒同道)라는 이념적 지향을 자신의 의학의 목적으로 삼았다.

25) 『醫門棒喝』「論景岳書」 원문은 주 7) 참조

26) 『醫門棒喝』「論景岳書」 “軒岐之論陰陽也 千變萬化 無不歸於中和 此醫經與易經 用雖不同出陰陽太極之源 可謂之醫即易易即醫也”

24) 『醫門棒喝』「論景岳書」 “天下道理一而已矣 醫理即易理 儒道即醫道 …夫道即理 理即道 異名而一體也”

장남의 의학과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인간의 생명을 형기(形氣)와 문화(文化)의 양면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이 둘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의학이 기화(氣化)를 중심으로 하여 생명의 형기적 변화를 쫓는 학문이라 한다면 유학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생명의 문화적 의미 내지는 도덕적 생명론을 제창한 학문이다. 유학이 추구하였던 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의 도덕주체의 확립이며 장남은 그러한 점을 의학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장남의 의학은 '치중화(致中和)를 유학과 의학을 이어주는 중심개념으로 삼아 의유동도(醫儒同道)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학은 유학에 못지않게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장남은 의학과 유학의 관계에 대해 '국가-신체'를 각각 '유학-의학' '대도-소도'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학과 의학을 대도와 소도로 분류하기는 하나 그 근원에서는 하나임을 밝힌다. 아울러 비록 의학이 소도이기는 하지만 성명(性命)을 보위하는 일을 담당하니 그 중요성은 대도에 못지않다고 한 것이다. 또한 대도(유학)와 소도(의학)는 동체이용(同體異用)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태극과 음양이라는 천지만물의 화생(化生)과 운용의 원리는 체(體)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세(治世)와 치신(治身)을 행하는 의학과 유학은 용(用)이라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동체이용(同體異用)의 차이점과 공통점의 회통을 장남은 치중화(致中和)라는 중화(中和)의 원리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3.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傳統文化研究會, 1996.
4. 徐儀明, 『性理與岐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5. 薛公忱篇, 『論醫中儒道佛』, 中醫古籍出版社, 1999.
6. 劉長林, 『內經的哲學和中醫學的方法』, 科學出版社, 1980.
7. 劉長林, 『中國系統思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8. 劉長林·滕守堯, 『易學與養生』, 沈陽出版社, 1997.
9. 張其成, 『東方生命花園』, 中國書店, 2000.

### 參考文獻

1. 章楠, 『醫門棒喝』, 도서출판 정담, 1993.
2. 張介賓, 『景岳全書』, 大成文化社, 1989.